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8호 2004년 7월 23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중소기업청, 신임 김성진 청장 취임



신임 김성진 신임 중기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원 및 지방청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 제8대 김성진 청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김성진 청장은 취임사에서 “시대의 여건변화와 고객인 중소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펼치겠으며, 단순히 연명을 위한

지원이나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 고급두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총무과  
(042-481-4389)

## Post-BI인 다산 EF(Enterprise Factory) 개소



허범도 중기청 차장, 김경식 다산벤처 사장 및 주요 참석 인사들이 개소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옛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청사(수원시 소재)에서 허범도 중기청 차장, 김경식 다산벤처주식회사 사장 및 입주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기관인 다산 EF(Enterprise Factory)의 개소식을 가졌다.

다산 EF는 다산벤처(주)가 중기청과의 관리위탁 계약에 의해 옛 경기중기청 청사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보육 및 투자기능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다산

벤처(주)는 기존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능과 함께 창업보육기능도 수행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창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다산 EF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154평 규모로 10여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소규모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번 다산 EF의 개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입주 보육 및 투자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창업보육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유희 국유재산을 창업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7)

##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2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로서 1965년도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공공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공,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대두와 공정경쟁의 확산 등 경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의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하여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거나 우수 신기술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조합들의 경우 편중배정, 연고배정 등 불공정한 제도 운영과 배정물량의 하청생산 납품, 대기업제품의 구매납품 등 악용사례가 많았고, 물량배정 문제 등으로 조합회원사간 내분과 갈등의 심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중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조합 및 업계와의 수차례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었다.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되, 대기업 제품, 외국제품 및 하청생산 제품의 경쟁참여를 배제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 방지 및 소기업의 하청기업화를 차단하여 영세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급별경쟁제도'를 도입하되, 영세기업은 조합을 결성을 통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낙찰율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엄정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덤핑입찰이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일정기

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 촉진펀드 조성, 신규진출 유망업종의 정보제공, 사업전환에 따른 유희설비 및 공장매각, 근로자 재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공사·용역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에 할당하는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며,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분리·분할 발주 권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그 동안 단체수의 계약제도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각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신기술제품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혼선을 방지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 등 성능요건을 인증받은 신기술제품에 대한 ‘신뢰성 보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수입을 주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의존하였던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사업조합들의 경쟁참여를 허용하고 정부가 수행중인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에 조합의 참여를 확대하여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공단지 및 보훈·복지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개선 없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축소되는 반면 해당 단체 등의 물량이 확대되어 일반 중소기업이 관련단체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의 기준 설정 및 정기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하청제품·외국제품 등의 납품을 근절하여 관련법령에서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대상만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졸업제(5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수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구매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입찰정보 등 각종 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허위정보 제공기업에 대한 벌칙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77)**

# APEC 중기 정보화 정책포럼 개최

## - 역내 중소기업 정보화 협력방안 모색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15~16일 양일간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04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중기청이 2005년 APEC 정상회의 및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APEC 역내 중소기업 정보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원국간의 중소기업 정보화 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11개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보화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의 지원정책 및 우수 사례를 논의하고 APEC 차원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정욱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

위원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통신(IT)을 활용한 수출경쟁력 향상의 해법을 제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의 성공적인 도입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전략과 민간간의 실무기능의 상호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난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업무효율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델 및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리더로 활동하는 크리스 홀(Cris Hall) 호주 경영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IT를 활용하면 1조 달러의 거래액을 추가 창출할 수 있다"면서 역내 협력, 특히 OECD 기구와 e-비즈니스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교정 숙명여대 아시아태평양 여성정보네트워크 센터장은 "여성기업인이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PEC 여성 e-비즈니스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용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책연구부장은 "APEC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APEC 중소기업실무그룹에 정보화 서브그룹을 신설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포럼의 성과와 9월 개최 예정인 정보화 워크숍의 결과를 2005년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적극 반영하여 APEC 역내에서 IT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IT업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6)

## 실업계 고교생 대상 비즈쿨 경제캠프 개최 - 기업가적 자기개척능력 향상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청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업가 정신 및 자기 개척능력 향상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80개 비즈쿨 시범학교 학생 및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베어스타운 리조트(경기 포천 소재)에서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비즈쿨 경제캠프'를 개최한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 및 교사는 소비자·시장·경쟁사 등의 분석과 가격·판매·홍보·유통 등에 대한 전략수립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번 비즈쿨 경제캠프는 그간 교내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어 교사가 직접 교수하기 어려운 전문영역과 현장감각을 익히기에 미흡했던 사항들을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협의하고 경쟁하면서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조기에 기업마인드를 향상하고 친 기업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